



보도시점 2026. 8. 27.(목) 12:00

배포 2026. 8. 27.(목) 08:30

2026년 벼 재배면적 670천ha로 국가데이터처 발표, '수급조절용 벼' 제외 시 659천h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8월 27일 발표한 '2026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잠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벼 재배면적(잠정)이 전년(678천ha)보다 7.5천ha 감소된 670천ha라고 발표하였다.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면적(11천ha)을 제외하면 659천ha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19천ha 감소된 것이다.

* '수급조절용 벼' 직불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재배면적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수급조절용 벼' 직불은 참여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의무 출하하고, 직불금과 벼 판매대금을 받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출하한 벼를 평시에는 가공용으로만 공급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만 밥쌀로 신속하게 전환한다.

올해 감소 예상 면적(19천ha)은 최근 5년 평균 감소량(9.6천ha)*의 2배에 이른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확대('25년 2,440억원 → '26년 4,196억원)하고 '수급조절용 벼' 등 신규 품목을 도입하였다.

* 벼 재배면적 증감 추이(천ha): ('21) +6 → ('22) △5 → ('23) △19 → ('24) △10 → ('25) △20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상 상황과 작황, 재고, 쌀 소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026년산 쌀의 수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 마련하여 수확기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김동현 (044-201-1810) 정정희 (044-201-1815)
	식량산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허동웅 (044-201-1831) 홍성욱 (044-201-1835)



연도	벼 재배면적 (천ha)	쌀 생산량 (천톤)	단수 (kg/10a)
'05	980	4,768	490
'06	955	4,680	493
'07	950	4,408	466
'08	936	4,843	520
'09	924	4,916	534
'10	892	4,295	483
'11	854	4,224	496
'12	849	4,006	473
'13	833	4,230	508
'14	816	4,241	520
'15	799	4,327	542
'16	779	4,197	539
'17	755	3,972	527
'18	738	3,868	524
'19	730	3,744	513
'20	726	3,507	483
'21	732	3,882	530
'22	727	3,764	518
'23	708	3,702	523
'24	698	3,585	514
'25	678	3,539	522